

최근 북한시장의 물가 및 환율 동향

Online Series

2020. 7. 10. | CO 20-13

최지영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올해 상반기 북한시장의 물가환율 변동성은 전년대비 확대되었는데,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대내외적 영향이다. 대외적으로는 출입국 관리가 강화되면서 북중무역이 급감함에 따라 대중수입 소비재 공급이 축소되었고, 대내적으로는 심리적 불안에 따른 사재기 수요증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북한당국의 정책변화 가능성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언급되고 있는 공채발행, 수입허가권의 외화판매, 수입품목의 제한과 같은 정책변화가 시장의 물가환율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다만, 2~4월 중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시장의 물가환율은 5~6월 안정화 추세로 전환하여,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북한경제의 여건이 하반기 이후에도 낙관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식량부족 국가이자 저소득 국가인 북한이 대북제재 하에서 코로나19라는 전지구적 충격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들어가며

지난 6월 16일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대남강경노선 선회의 배경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분석하는 가운데, 특히 최근 북한경제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는 있으나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한

분석은 제한적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경제 분석에 있어 가장 시의성 있는 자료 가운데 하나인 북한시장의 물가 및 환율 데이터를 이용하여 올해 상반기 현황을 분석한다.

북한시장의 물가 및 환율 데이터는 북중무역과 함께 북한경제의 최근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자주 활용된다. 이들 자료는 현 시점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주로 공개되기 때문에 가장 시의성 있는 북한경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시장의 물가 및 환율 데이터는 북한전문 언론매체를 통해 최근 한 달 이내 자료가 월 1~2회 주기적으로 수집되고 있고¹⁾, 북중무역 통계 또한 중국해관을 통해 1~3개월 이내 자료가 공개되고 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파악할 수 있을까? 북한시장의 물가는 주로 가계 소비와 관련한 재화와 서비스의 수급상황을 반영하는 신호이며, 환율은 북한 원화 가치의 안정성을 반영한다. 또한, 북중무역은 전체 북한무역의 95%를 차지²⁾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외 경제 여건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시장의 물가·환율 데이터는 북한당국이 체계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북중무역은 중국이 발표하는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이자 밀무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³⁾ 이러한 통계적 문제는 북한과 관련한 경제통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를 감안하여 결과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미리 밝힌다.

2. 2020년 상반기 물가 및 환율 동향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시장의 물가 및 환율은 2012년 하반기 한 차례 급등한 이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북한 화폐가치의 안정세는 김정일 집권기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다. 2000년대 이후 북한시장에서는 만연한 인플레이션이 관찰되었고, 특히 2009년 말 단행된 화폐개혁으로 2010~2011년 중에는 북한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화폐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이 시간에 따라 점차 완화된 측면도 있으나,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시장의 물가·환율의 안정세에는 식량생산량 증가, 국제곡물가격

1) 북한시장의 물가 및 환율 자료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에 기반한 언론매체들(데일리NK, 아시아프레스)에 의해 주로 발표되고 있다.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8 북한 대외무역 동향』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9), p. 14.
 3) 잘 알려져 있듯이, 북한 스스로 발표하는 통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민소득과 무역 등 주요 자료는 외부기관의 추정치에 의존하고 있어 비관측(non observation)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물가 및 환율 자료 또한 조사지역이 제한적이고, 조사시점 및 조사대상의 품질·규격 차이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정과 같은 실물적 요인, 북한당국의 유동성 관리와 같은 화폐적 요인, 일관된 시장허용 및 상업유통체계의 개선과 같은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⁴⁾

대북제재 강화 이후에는 2017년 한 차례 물가가 상승하였으나, 대체로 2018년 하반기 이후에는 하향 안정화되었다.⁵⁾ 2017년에는 쌀, 옥수수와 같은 주요 곡물가격 뿐만 아니라 수입 제한 품목인 정제유의 가격도 폭등하였는데, 당시 물가 상승은 대북제재 강화로 인한 공급 부족이 심화된 결과라기보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 2017년 북한의 전체 수입이 오히려 소폭 증가했고, 정제유의 수입 상한을 대폭 축소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2397호)도 2017년 12월에 채택되었기 때문에, 당시 북한경제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8년에는 품목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하반기 이후 북한시장의 물가는 안정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2019년에도 지속되었다.

이처럼 대북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시장의 물가가 안정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우리가 관찰하는 대부분은 북한시장의 식료품 가격으로 품목의 특성상 국내생산 비중이 높아 ‘무역충격’인 경제제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도 산업용·수송용 기기 및 정제유 등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고 식료품과 소비재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대표적인 제재 품목인 정제유는 상한선 이하로 수입되고 있고, 밀무역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자제품과 같은 수입제한 품목의 소비재 가격은 상대적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대부분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대북제재 강화 이후 식료품 및 농업 중간재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전체적인 소비재 수입은 대북제재 강화 이전 수준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생산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만한 요인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시장의 환율도 안정세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물가를 상승시킬만한 요인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2019년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던 북한시장의 물가와 환율은 2020년 상반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물가와 환율 변동은 시장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그 크기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충격 발생에 따른 경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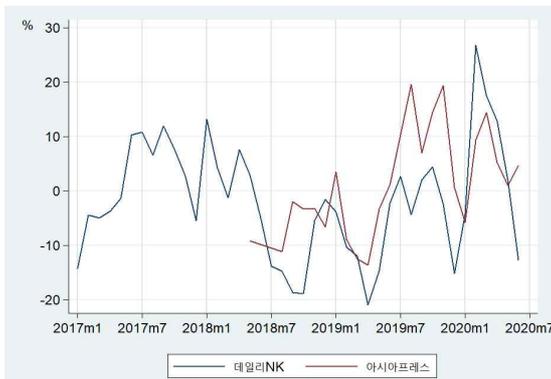
4)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의 물가·환율 안정세의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 최지영,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시장의 물가와 환율 동향,” 『한반도포커스』, 제41호 (2017).

5) 최지영, “2019년 북한경제 평가 및 전망: 시장물가 및 시장환율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제22권 제1호 (2020), pp. 8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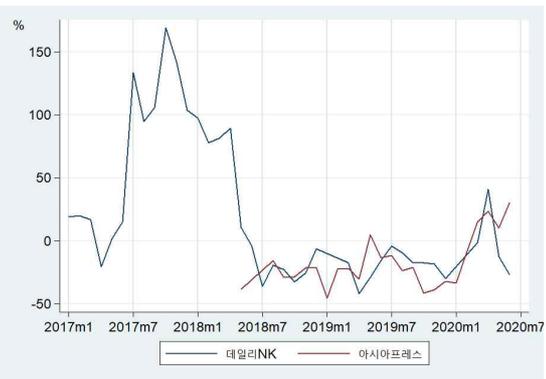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즉, 이러한 변동성 확대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여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북한시장의 쌀·휘발유 가격은 2월 초와 4월 말 두 차례 급등한 뒤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며, 북한시장 환율도 2~4월 중 상대적으로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북한시장의 물가환율 변동성 확대는 주로 다음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대내외적 영향이다. 우선, 1월 말부터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면서 1/4분기 기준 대중수출과 대중수입은 각각 75.5%, 52.7% 감소하는 등 북중무역이 대폭 감소하였다. 대북제재 장기화로 북한의 무역규모는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는데,

<그림1> 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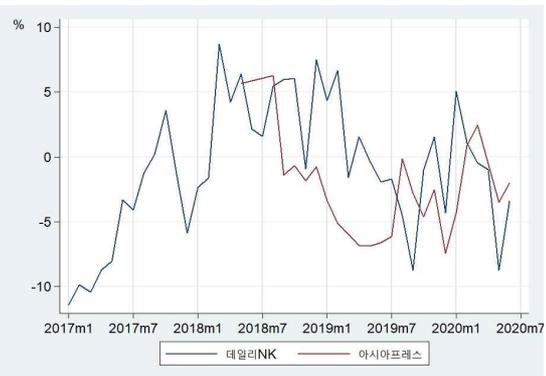
<그림2> 휘발유 가격



<그림3> 북한 원/달러 환율



<그림4> 북한 원/위안 환율



주 : 1) 조사 자료를 월별로 정리한 후 전년동월대비 변동률로 나타낸 것임

2) 데일리NK 자료는 평양, 신의주, 혜산 지역 자료를 평균한 것임.

자료: 데일리NK, 아시아프레스

코로나19로 인하여 무역규모가 더 감소한 것이다. 대북제재 강화 이후에도 식량, 소비재 수입이 유지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19에 따른 북중무역 급감은 대중수입재 공급 감소를 통해 물가를 상승시킨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심리적 불안은 북한시장 내에서 사재기와 같은 수요 증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대를 통해 물가를 상승시켰을 수 있다. 2월 초 물가 상승은 대북제재 강화 직후와 같이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북제재가 강화되던 2017년 중 물가의 상승 추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당국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정책변화 내용은 4월 중 북한당국이 공채를 발행하여, 일부를 외화로 판매한다는 것⁶⁾과 필수재 위주로 수입품목의 제한을 지시⁷⁾하거나 외화로 무역허가권을 판매⁸⁾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 변화는 북한의 공식매체를 통해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의 물가환율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을 다음과 같이 상정해볼 수 있다. 우선, 외화를 근거로 공채와 무역허가권을 판매했다는 것은 북한당국이 민간이 보유한 외화를 흡수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변화로 인하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⁹⁾ 또한, 수입품목 제한 지시는 수입재 공급 부족을 우려한 수요 증가, 수입재의 공급 감소로 인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요약하면, 올해 상반기 북한시장의 물가환율 변동성은 전년대비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출입국 관리 강화에 따른 무역 감소, 생산 활동 위축의 영향으로 설명된다. 또한 북한당국의 정책변화 시도가 있었다면, 이로 인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2월 초, 4월 말 두 차례 급등한 이후 북한시장 물가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6월에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시장 환율도 2~4월 중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5~6월 중에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상반기 시장과 관련한 지표들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그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6) “北, 공채 준비 완료... 각 기관에 20일부터 매입 지시 하달,” 『데일리NK』, 2020.4.21.

7) “북한당국, ‘코로나로 올해 말까지 수입 제한’ 전민에 하달,” 『데일리NK』, 2020.4.22.

8) “北, 내달 15일 對中무역 일부 허용 방침 ..‘외화로 허가증 구입해라,’” 『데일리NK』, 2020.5.29.

9) 언급했듯이 매체별로 북한 원/달러 환율 변동의 방향과 시점이 상이하여, 환율 변동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아시아프레스는 2~4월 중 상승세를 보인 이후 5~6월 중 하락하였고, 데일리NK에 따르면 1/4 분기까지 안정세를 보이다가 4월 말 급락한 이후 5월 중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매체별 추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북한 시장의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다고 표현하였다.

3. 향후 전망

2020년 상반기 북한경제는 대북제재 장기화에 따른 영향과 코로나19라는 일시적 충격이 중첩되어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북한시장의 물가환율 지표는 이원화된 북한경제의 한 쪽 측면만을 주로 보여주고 있으나, 이들 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북중무역의 급감과 함께 북한경제의 여건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5~6월 이후에는 시장의 물가환율이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불안이 2000년대 관찰되었던 수준으로 증폭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시장 지표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것은 북한당국이 개입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즉, 시장거래에 ‘한도가격’ 부과와 같은 방식으로 개입¹⁰⁾하거나 배급량 조절을 통해서도 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¹¹⁾

문제는 북한경제의 상황이 올해 하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¹²⁾ 우선, 상반기 생산활동 위축으로 인한 영향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 상반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북한 내에서도 물리적 거리두기 등 방역활동이 강화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생산활동 전반이 정체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비료 등 농업중간재가 적절하게 투입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식량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곡물의 상업적 수입이나 대외원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식량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둘째,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여부도 북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 1월 말 국경봉쇄에 준하는 수준으로 출입국 관리를 강화한 것은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여건이 반영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강도 높은 대응이 지속될 경우,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셋째, 최근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북한당국의 정책변화 시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당국의 보유외환 부족을 반영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수입 감소가 지속되는 등 대북제재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뚜렷해질 수 있다.

향후 북한시장의 물가가 급등한다면, 이에 따른 부정적 충격은 주로 경제활동을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가계에 집중될 것이다.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북한시장 물가의 대부분이 식료품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물가 급등은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의 신호이기도

10) “북한, 국경봉쇄로 시장 물가 오르자 관리 동원 가격 통제 나서,” 『데일리NK』, 2020.2.11.

11) 2019년에는 직전 5년(2014~2018년) 평균의 두 배에 이르는 곡물을 중국으로부터 도입했는데, 곡물 도입량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원조라면 배급 확대로 인하여 시장가격이 안정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12) 최근 발표된 선행연구는 대북제재라는 추세적 충격과 코로나19라는 일시적 충격이 중첩된 현재 상황이 1994년 당시와 유사하며, 내구력의 측면에서 북한경제 여건은 1994년보다 개선되었으나, 현재와 같은 중첩된 충격이 지속될 경우 경제위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이석, “2020년 북한경제, 1994년의 데자뷔인가?” 『KDI 북한경제리뷰』, 제22권 제5호 (2020).

하다.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의 최근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공급사슬의 중단이 식량안보위기(food security emergency)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식량가격과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¹³⁾ 이 보고서는 식량안보지수의 경제적 측면과 1차 상품 수출의존도 등을 결합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식량안보위기에 처한 국가들을 선정하였는데, 총 49개국 중 북한도 포함됐다.¹⁴⁾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및 농업 중간재 도입을 큰 폭으로 늘리는 등 제재의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지 않도록 힘써 왔으나, 식량부족 국가이자 저소득 국가인 북한이 코로나19라는 전지구적 충격을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알려지기 쉽지 않으며¹⁵⁾, 인도적 지원 역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의 면제 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KINU 2020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3) WFP, *COVID-19: Potential Impact on the World's Poorest People* (2020), pp. 11~13.

14) 위 보고서는 식량안보수준을 나타내는 복합지수인 Proteus food security 지수의 경제적 측면과 연료, 광석, 금속과 같은 1차 상품의 수출의존도를 결합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에 처한 국가들과 각국의 만성적 식량불안 상태 인구수, 심각한 식량불안 상태 인구수를 추정하였다.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만성적 식량불안 상태에 처한 인구는 2억 12백만 명이며, 북한의 경우 인구 절반에 가까운 12백만 명이다.

15) 북한은 국제 인도적 지원 단체인 CARE International이 선정한 '2019년 인도주의적 위기가 잘 알려지지 않은 10개 국가'에 포함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적 고립, 언론활동의 제한으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은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CARE International, *Suffering in Silence: the 10 most under-reported humanitarian crises of 2019* (2020).